



원골마을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동원1리에 속하는 곳으로 충청남도에서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차령산맥, 남쪽으로는 계룡산이 주요 산계를 이루고, 북으로는 천안과 아산, 남으로는 부여와 논산, 동으로는 청양과 예산, 서로는 연기군과 대전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대전에서 55km, 공주에서 25km, 유구에서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원골마을은 32번 국도에서 사곡면을 지나 유구읍을 가기 전에 공주 동원리 석탑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면 동원1리 표지판과 경지정리가 잘된 논이 길 좌우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철재



아치가 보인다. 길가에 황새 조형물이 보이고, 유구천을 지나는 동원교 앞에는 동원일리(원골) 표지석과 느티나무, 그리고 황소들의 조형물이 농로와 유구천변에 설치되어 있다.

유구천은 금강수계로서 금강 제1지류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구읍 탑곡리, 덕곡리, 추계리에서 시작한 지방2급 하천은 사곡면, 신봉면 경계지점 지방1급 하천이 되고, 우성면에서 금강 본류와 만난다. 유구천은 공주의 3대 하천의 하나로서 물이 맑고 깨끗하며, 수량이 많아 낚시꾼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동원보에는 갈대, 물억새, 부들 등이 많아 주위에 축사가 많은데도 수질을 개선해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자연형 하천을 유지하고 있다.

원골마을은 마한시대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백제시대에는 별



음지현에 속하였으며, 통일신라 때는 청음현에, 고려 때는 공주목 신평현, 조선시대에는 공주부 신하면에 속하였으며, 특히 조선시대에 동원골이 있었던 곳이라 “동원”이라 불렸으며, 동원리 북쪽에 있는 큰마을로 “원동”이라 불렸으며, 길을 가는 행인들의 편의를 도와주던 고관원이 있어서 많은 행인들이 쉬어 갔던 마을이라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동막리, 화압리, 원동의 각1부를 병합하여 동원리라 하였다. 1942년 신평면에 편입되었다.

이 마을의 전통 무형문화 자원으로서 재미있는 4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 이야기는 “금돼지 전설”로서 못된 금돼지가 도술을 부려 사람을 괴롭히고 부임하는 원님의 자제를 잡아다가 원골 뒷산 굴속에 가둬놓고 일을 부려먹는 못된 금돼지를 힘세고 현명한 원님이 부임하여 꼬를 내어 사로 잡았







## 생태영농 탐방

예술과 마을의 행사는 처음에는 젊은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 점차 마을 주민의 참여가 늘어나,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예술로 나타나 자연도 작품이고, 일상의 삶도 작품으로 승화되어 “예즉농, 농즉예”라는 말을 만들어 내어 예술과 삶 그리고 농업이 어우러져 행사는 더욱 풍부해졌으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지역 기업의 후원,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모델로 보여 진다.

그러나 예술과 마을은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행사는 이제 마을 주민 스스로 운영해야 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좀 더 많은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일회성 축제가 아닌 상설 전시로서 사계절 관광과 체험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마을축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축제와 마을의 농가소득이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을의 주소득원은 쌀과 표고버섯, 그리고 고추 등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고, 도시민과 직거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을의 현황은 80가구로서 농가가 55농가, 비농가가 25가구이며, 인구는 약200명으로 남자가 90명, 여자가 110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인 140명으로 이미 노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노령사회는 이 마을의 위기이자 기회이며,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선 위기의 요소

는 전통문화에 대한 보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노령인구의 만족이 곧 마을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노령인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반대로 기회의 요인은 노령인구를 대신할 새로운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유형의 자원(토지, 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지금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을에는 실루엣(백년가야 건물)과 원두막, 자연미술의 집, 목공 체험소(한그루), 버섯저장창고 2동, 농기계공동보관창고 2동, 마을회관, 마을 주차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실루엣은 마을 동제를 지내는 느티나무 옆에 예쁘게 꾸며진 시설물로서 마을과 약간 떨어져 있어 체험 장소로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회의 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 마을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실루엣과 마을회관을 공유하면서 체류 체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연미술의 집 또한 마을이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건물이지만 이 부분은 마을과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목공 체험소(한그루)도 일상적인 체험 장소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 들어오는 외지인은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다. 마을이 발전하는 데도 함께 노력하고, 공유하는 열린 마을이 요구된다. 도시민의 귀농, 주말농장, 별장

등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들어오는 사람도 공동체로서 그에 맞는 책임이 요구된다. 서로의 벽을 허물 때, 마을은 하나가 되며 발전할 것이다. 닫힌 대문은 보이지 않는 장막이다. 그 장막은 마을 공동체를 허물어트리는 위기의 신호이다. 오늘 우리

는 원골 마을에서 농민에 의한 예술, 그리고 예술인에 의한 진정한 예술 사랑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자연과 인간,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야 할 남다른 예술 사랑을 원골마을에서 볼 것이다.



△ 정주나무(350년된 느티나무)



## 생태영농 탐방



△ 실루엣(백년가막 건물)



△ 자연미술의 집,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아투"



△ 밀납인형(오줌싸개)



△ 영국작가 BEN TAFFINDER의 Bird cages, bamboo and string

원골마을 연락처 \_ "예술과 마을" 운영위원장 조학목 011-422-7494